

# 육계자조금 대의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 종 길 고문 | (주)하림

지난 2005년 12월 23일 첫 번째 대의원 총회가 유회되면서 이후 3차례 더 대의원 총회를 소집했으나 이 또한 부결 또는 유회되면서 2년이 라는 긴 세월이 안타깝게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타 축산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억원이 훨씬 넘는 자조금 예산들을 확보해 시의적절한 소비홍보사업으로 지속적인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나, 육계자조금 사업은 계육협회에서 임의자조금 사업 명목으로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의자조금 사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육계자조금 사업은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으므로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간담회에서는 양돈자조금 인상과 관련해 “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를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조금 인상 후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자조금 인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긍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양돈자조금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26배의 직·간접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에 고무되어 현재 두당 400원

씩 거출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두당 600원씩 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등급판정 수수료까지 합하면 두당 1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영향으로 돼지고기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가 신장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닭고기의 경우 소비가 증가되기는 커녕 오히려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으며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시세는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료가격은 금년 들어 25%가 인상됐으며 머지않아 25%가 더 인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금년도 인상분만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곡물가격은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 대량으로 활용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치솟는 원유가는 곡물 가격의 상승을 앞으로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의 시세하락과 11월 하순에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50% 이상의 소비 위축과 가격폭락을 가져왔으며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는 소비위축은 전체업계를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종계분양 실적을 보면 내년까

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잔치만 구경하고 본연의 육계산업은 외면하시렵니까? 이대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양계인들은 의무자조금 사업 출범을 서두르지 않으면 공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자조금 사업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문제점들을 자조금 사업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올해도 AI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철저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육농가들은 계열업체와 계약해 사육을 하고 있는 탓에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 여파는 육계산업 전체에 파급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서서히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까지 닭고기 시장을 잠식할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먼 산의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서울시내 중·고교 80%이상 급식에 수입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닭고기는 돼지고기나 쇠고기와 달리 만병의 근원이 되는 성인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염원하는 건강한 체력, 몸짱을 만드는데 저지방·저칼로리의 닭고기가

최고라는 것은 한류스타 배용준씨 등이 증명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비홍보사업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닭고기 시장은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배 이상으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웰빙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중 있는 소비홍보사업은 반드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사로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육계자조금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정착시켜 나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분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으며 서운했던 모든 것은 봄눈 녹듯 사라질 것이고 즐거움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15일 대의원 총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육계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를 만듭시다.

양계협회는 계육협회를 위해, 계육협회는 양계협회를 위해 서로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열심히 의논하고 실천했을 때 반드시 기대 이상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가 고맙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